

외부세계 회의론 반박에 대한 재반박

박제철*

주제분류 인식론, 언어철학.

주요어 외부세계 회의론, 실재론, 퍼트남, 비트겐슈타인

요약문

본 논문에서 필자는 외부세계 회의론을 반박하는 김진희의 논변을 재반박하고자 한다. 김진희는 퍼트남의 논증,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논증을 이용해 외부세계 회의론을 비판한다. 그러나 퍼트남의 논증은 외부세계 회의론 모델에 그대로 간혀 있다는 문제, 비트겐슈타인의 논증을 이용한 비판은 거짓 전제를 사용해 거짓 결론을 도출한다는 문제를 노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논증하고자 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서론

필자는 필자의 논문 「외부세계 존재에 대한 무어 논증 비판」에서 외부세계 회의론을 옹호했다. 외부세계 회의론이란 우리의 인식적 한계로 인해 우리는 외부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대해 김진희는 그의 논문 「외부세계 회의론과 의미론적 극복」에서 필자의 주장을 비판하고, 외부세계 회의론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외부세계 회의론은 잘못 설계된, 거짓 이론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외부세계 회의론을 주장하는 모든 진술들이 ‘무의미(nonsense)’하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외부세계 회의론이라는 문제 자체를 해소시키고자 한다.”¹⁾ 필자는 본 논문에서 김진희의 시도가 실패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외부세계 회의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이론이 옹호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본론

1. 외부세계 회의론 모델²⁾

외부세계 회의론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그 입장이 정당화되려면, 모델이 필요하다. 우선 다음과 같은 모델을 살펴보자. 모델은 첫째, 어떤 특정 대상, 둘째, 철수가 그린 그림, 그리고 엄마, 이 셋으로 구성된다. 철수를 남겨 놓고 엄마는 시장에 갔다 온다. 그리고 엄마는 철수가 그린

1) 김진희(2016), 304.

2) 1절은 박제철(2015)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그림을 보게 된다. 이제 이 그림과 관련해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째, 철수는 집 안의 어떤 물건을 제대로 잘 그렸다. 둘째, 철수는 집 안의 어떤 물건을 왜곡해 그렸다. 셋째, 철수는 집 안에 없는 물건을 그렸다. 이 세 가지 가능성들 중 어떤 것이 진실인지 엄마는 확인할 수 있다. 집안을 잘 살펴, 셋 중 어느 하나가 진실임을 엄마는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이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자. 모델에서는 그림이 하나 있고, 어떤 대상이 하나 있고(없을 수도 있다), 이 둘 밖에서 그림과 대상의 관계(일치 혹은 불일치)를 확인해 줄 엄마가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엄마라는 존재가 그림, 그리고 대상, 이 둘 밖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엄마는 그림과 대상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이 모델과 관련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우리 정신에 맺힌 상이 우리 밖의 대상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알 수 있다고 믿는다. “너 잘못 본거야!”라는 표현이 이를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라는 그림, 외부 대상,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할 그 무언가가(위 모델에서의 엄마처럼) 존재한다고 믿는다. 정말 우리는 우리 정신 밖에 있다고 믿어지는 외재적 대상과, 그 대상을 표상하는 우리 정신 내부의 상,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위 모델의 엄마처럼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 모델에서 엄마는 그림과 대상 밖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 정신의 그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정신 안에 갇혀있다.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때, 그러한 인식에 대한 적절한 모델은, 그림, 대상, 엄마, 이 셋으로 이루어진 모델이 아니라, 그림과 대상, 이 둘로 이루어진 모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림 밖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림이다. 그림과 대상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 우리는 그림 안에 갇혀 있다. 따라서 그림과 대상간의 관계에 대해, 이 둘이 서로 대응한다거나, 왜곡되었다거나, 대상이 없는 그림이라거나 하는 가능성 중 어느 하나가 옳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특히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위 모델에서의 엄마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신이다. 신은 우리 정신의 그림 밖에서, 그리고 그 그림이 그린다고 믿어지는 대상들 밖에서, 이 둘을 바라보며, 우리 정신이 대상을 잘 그리고 있는지, 왜곡해 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 대상을 그리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신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 인식과 관련한 우리의 판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철학사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능성은 모두 옹호되어 왔고, 우리는 우리의 인식적 한계로 인해, 이 중 어느 하나만이 옳은 이론이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세 개의 개념을 도입해 이러한 가능성들을 정리해 보자. 첫째, 나는 표상적 내부세계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이다. 표상적 내부세계는, 우리 감각기관이 다 닫혔을 때, 예를 들어 내가 꿈을 꾸고 있을 때, 내 정신에 펼쳐지는 세계이다. 그리고 그 세계 내의 대상들을 표상적 내부대상이라고 부르자.³⁾ 표상적 외부세계는 내가 나의 감각기관을 열었을 때 내 정신에 펼쳐지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꿈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내 정신에 펼쳐지는 세계로서, 우리는 내 정신의 이런 그림들이, 내 정신 밖의 어떤 사물들로 인해 그려진 것이라 믿는다. 셋째, 바로 이렇게 내 정신에 그림들을 새겨 낸다고 믿겨지는 바로 그 사물들의 세계를 나는 실제적 외부세계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 인식의 모델이, 그림, 대상, 엄마, 이 셋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림, 대상, 이 둘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모델이 셋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그림 밖으로, 우리 정신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꿈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림과 대상, 우리의 용어로 하면 표상적 외부세계

3) 표상적 내부세계는 무어 논증에 대한 반박을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표상적 내부세계라는 개념 장치는 맥락상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표상적 내부세계, 표상적 외부세계 구분 없이, 내 정신에 펼쳐지는 세계를 통칭해 ‘표상적 세계’라고 표현할 것이다.

와 실제적 외부세계인데, 우리는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인식적 위치에 놓여있지 못하다. 즉 표상적 외부세계라는 우리 정신의 그림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적 외부세계를 제대로 잘 그린 그림인지(상식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으며, 철학사에서는 오랜 동안 이것이 당연시되었다. 나는 이 입장을 ‘전통적 실재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왜곡해 그린 그림인지(라이프니츠, 칸트 식의 개념 도식론이라고 한다), 없는 것을 그린 그림인지(외부세계 부재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우리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세 이론 중 어떤 이론이 적절한 것인지 우리는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은 취향의 문제이다. 칸트는 실제적 외부대상을 물자체라고 불렀다. 위에서 본 것처럼 물자체의 존재에 대한 칸트의 확신은 그의 믿음일 뿐이다. 반면 물자체에 대해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칸트의 주장은, 우리가 우리 정신 밖으로 나가야만 물자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리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래서 실재론, 개념 도식론, 외부세계 부재론, 이 셋은 서로 간의 이론적 우위 없이 난립할 수 있다. 이 세 이론 중 어느 하나가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정신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즉 표상적 외부세계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재론, 개념 도식론, 외부세계 부재론, 이 셋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신적인 관점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외부세계 회의론이다. 외부세계가 없다는 주장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 김진희의 해결책

김진희는 이러한 외부세계 회의론에 도전한다. 그는 외부세계 회의론

이 거짓 이론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는 퍼트남과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사용해 이를 증명하고자 하는데, 필자는 이 두 해결책 모두가 실패라고 생각한다. 우선 퍼트남의 해결책은 명백하게 오류이다. 퍼트남의 해결책은 앞에서 설정된 외부세계 회의론 모델, 즉 실제적 외부세계와 표상적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델에 그대로 적용되어, 이로부터 빠져나가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둘째,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사용해 외부세계 회의론이 거짓 이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짓 전제를 사용해 거짓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제 이 두 해결책 각각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김진희는 비트겐슈타인 식의 해결책이 외부세계 회의론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반론이라 생각하기에, 만약 이러한 반론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외부세계 회의론은 더 강력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2-1. 퍼트남의 해결책

김진희는 “퍼트남의 지칭주의적 해결책”이라는 절에서 퍼트남의 “통속의 뇌 가설”이라는 사고 실험을 소개하고, 이것이 외부세계 회의론을 해결하는 한 가지 가능한 입장이라 주장한다. 우선 퍼트남의 사고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자.

철학자들에 의하여 그 가능성이 많이 논의되는 과학적 공상의 예 하나를 들어보자. 어떤 인간이(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사악한 과학자에게 수술을 받았다고 하자. 그 사람의 두뇌가 육체에서 분리되어 두뇌를 계속 살아 움직이게끔 해줄 영양분이 가득 담긴 통속에 옮겨졌다고 하자. 신경 조직은 그대로 초과학적 컴퓨터에 연결되어 이 컴퓨터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완벽히 정상적인 듯이 보이는 환각을 일으키도록 한다고 하자. [...] 신경 세포는 그 두뇌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이러저러한 환상을 일으키도록 하는 초과학적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⁴⁾

김진희가 그렇게 이해하듯이, “통 속의 뇌 논변은 실제적 외부세계(통과 뇌가 있는 세계)와 표상적 세계(뇌가 인식하는 세계) 사이에 성립하는 회의론이다.”⁵⁾ 실제로는 통 속의 뇌이지만, 그 뇌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은 그 뇌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퍼트남은 이런 식으로 정식화된 외부세계 회의론을 반박하고자 한다. 그의 해결책은 “통 속의 뇌 가설”이 자기논박적 가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가설을 받아들이는 외부세계 회의론자들을 논박하는 것이다. “통 속의 뇌 가설”은 왜 자기논박적인가? 김진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 (CC) 어떤 용어는 오직 그 용어와 대상 사이에 적절한 인과적 관계가 성립하는 한에서 대상을 지칭한다.⁶⁾
- i) 우리가 통 속의 뇌라고 가정하자.
 - ii) 만약 우리가 통 속의 뇌라면, “뇌”는 뇌를 지칭하지 못하며 “통”은 통을 지칭하지 못한다.[CC에 의해]
 - iii) 만약 “통 속의 뇌”가 통 속의 뇌를 지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통 속의 뇌다”는 문장은 거짓이다.
 - iv)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통 속의 뇌라면, “우리는 통 속의 뇌다”라는 문장은 거짓이다.[i), ii), iii)에 의해]⁷⁾

A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자. 그는 통 속의 뇌이다. A는 슈퍼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 그 뇌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도록 고

4) H. 퍼트남, 『이성, 진리, 역사』, 26-7, 김진희(2016), 305-6에서 재인용.

5) 김진희(2016), 306.

6) (CC)는 인과적 제약(Causal Constraint)의 약자이다.

7) 김진희(2016), 306-7.

안되어 있다. 즉 A는 대화하고 행동한다. 실제로는 통 속의 뇌이지만, 그는 표상적 세계에 갇혀서, 그 세계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이제 퍼트남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A가 “나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발언할 때, ‘통 속의 뇌’라는 단어는 통 속의 뇌를 지칭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A가 ‘통 속의 뇌’라는 단어를 통해 무언가를 지칭하려면 그 지칭체와 ‘통 속의 뇌’라는 단어 사이에 적절한 인과적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즉 A가 ‘통 속의 뇌’라는 단어를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 속의 뇌’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적절한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대상은 A가 갇혀있는 세계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A가 갇혀있는 세계에서 A는 정상인이다. 따라서 A가 “나는(A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발언할 때, A는 자기논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나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발언해 보라. 왜 자기논박적인 주장인지 알게 될 것이다. 퍼트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정말로 통 속에 있는 두뇌에 불과하다는 가정이 물리적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해 온 모든 것과 전혀 모순되지는 않더라도 [이 주장은] **절대 참이 될 수 없는 가정**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⁸⁾

김진희는 외부세계 회의론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해결책으로서 퍼트남의 논변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해결책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이면서 비트겐슈타인의 해결책으로 넘어간다. 필자는 퍼트남에 대한 김진희의 비판은 건너뛰고자 한다. 김진희의 비판이 적절한 것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그 어떤 확신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퍼트남의 해결책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보이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자 한다.

앞에서 우리는 외부세계 회의론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했다. 우리는 실제적 외부세계와 표상적 세계 사이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둘 사이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뿐이다. 우리는 표상적 세

8) H. 퍼트남, 『이성, 진리, 역사』, 28. 김진희(2016), 307에서 재인용.

계에 간혀있어 그것이 실제적 외부세계와 정확히 대응하는지, 잘못 반영하는지, 아예 실제적 외부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결정할 수 없다. 퍼트남의 “통 속의 뇌” 논변이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식론적 한계 상황이다. 퍼트남은 이러한 인식론적 한계 상황이 자기논박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A가 “나(A)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발언할 때마다, ‘통 속의 뇌’라는 단어는 적절한 인과적 연결 고리를 확보하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즉 A가 “나(A)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발언할 때마다, 이 발언은 필연적으로 거짓이 된다. 스스로 이 발언을 해 보라. 본인 스스로 이 발언이 거짓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퍼트남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란 바로 “A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발언을 A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발언을 자기논박적이지 아니게끔 발언할 수 있는 존재가 퍼트남의 가설에 설정되어 있다. 즉 사악한 과학자가 그이다. 사악한 과학자는 실제적 외부세계와 표상적 세계 모델에서의 신처럼, 표상적 세계 밖에서 이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그가 ‘통 속의 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는 이 단어와 대상(통 속의 뇌) 사이에 적절한 인과적 관계가 성립하는 방식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 당신이 사악한 과학자라고 가정하고, “A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발언해 보라. 이렇게 발언할 때, 당신은 적절한 인과적 지칭에 실패하는가? 이 발언이 필연적으로 거짓인가? A가 이 발언을 한다면, 그는 자기논박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다. 그가 간혀있는 표상적 세계에서 그는 통 속의 뇌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사악한 과학자는 아무 문제없이 “A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발언을 할 수 있다. “A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발언은 누가 이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자기논박적일 수도, 자기논박적이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자기논박적이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사악한 과학자의 존재를 통해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A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발언이 자기논박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외부

세계 회의론 문제를 해결하려는 퍼트남의 논변은 실패다. 내가 “나(A)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발언하면, 나는 자기논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신이, 혹은 사악한 과학자가 “A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발언하면, 신은 자기논박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퍼트남의 해결책은 앞에서 설정된 외부세계 회의론 모델, 즉 실제적 외부세계와 표상적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델에 그대로 적용되어, 그로부터 빠져나가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외부세계 회의론 모델에서의 신은, 퍼트남 모델에서의 사악한 과학자이다. 신과 마찬가지로 사악한 과학자는 자기논박적이 아닌 방식으로 메타 주장을 할 수 있다. A가 그렇게 하면 자기논박적이게 되지만, 사악한 과학자가 그렇게 하면, 전혀 자기논박적이지 않게 된다.

자신의 논증을 펼치면서 퍼트남 역시 사악한 과학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면 통 속의 두뇌의 경우 내재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나무를 표상하지 않는 감각 자료에 언어가 결부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면 도대체 외부적인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표상하는 언어 체계가 과연 두뇌에 형성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감각 자료, 방출 신경에 대한 작동 신호, 그리고 입력으로서의 감각 자료에 <언어 유입 규칙>에 의하여 연결되고 출력으로서의 작동 신호에는 <언어 방출 규칙>에 의하여 연결된 언어 또는 개념 체계 등으로 이루어진 통 속의 두뇌가 가진 전 체계는 개미의 그림과 윈스턴 처칠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실재하는 나무와는 아무런 관련도 가지지 않는다. 통 속의 두뇌가 가진 생각과 실재 세계의 인간이 가진 생각 간에 질적인 유사성(qualitative similarity)(질적 동일성이라 해도 좋다)이 있다고 해서 양자가 동일한 지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음이 밝혀진 이상, 통 속의 두뇌가 외적인 사물을 지시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있을 수 없음은 자명해졌다.⁹⁾

여기서 퍼트남은 사악한 과학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통 속의 두뇌가 가진 생각, 그리고 실제 세계의 인간이 가진 생각, 이 두 생각 간에 성립하는 질적 유사성이 있을지라도, 그 두 생각은 지시 기능에 있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다. 퍼트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상, 퍼트남은 자신의 논증 속에서 사악한 과학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퍼트남의 논변에 사악한 과학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A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명제를, 자기반박적이지 않게 발언할 수 있는 주체가 그 모델 안에 설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퍼트남의 논변은 외부세계 회의론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 될 수 없다. “A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발언을 자기반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출할 주체가 그 논변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퍼트남의 논변 속에 숨어 있다. 바로 적절한 지칭과 관련해 퍼트남의 논변은 외부세계 회의론을 오히려 돕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외부세계 회의론의 구도를 살펴보자. 그 구도 하에서는 두 개의 세계가 설정되어 있다. 하나는 실제적 외부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표상적 세계이다. 퍼트남의 통 속의 뇌 가설에서 어떤 것이 실제적 외부세계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표상적 세계에 해당할까? 김진희의 해석대로 실제적 외부세계에 대응하는 것이 통과 뇌가 있는 세계이며, 표상적 세계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뇌가 인식하는 세계이다. 이제 외부세계 회의론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우리의 표상적 세계에 간혀 있어서, 즉 뇌가 인식하는 세계에 간혀 있어서, 실제적 외부세계가 존재하는지, 즉 뇌와 통의 세계가 존재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이러한 외부세계 회의론의 주장은 정확히 퍼트남의 생각과 일치한다. 퍼트남에 따르면, 뇌가 인식하는 세계에 간혀 있는 A는, 실제적 세계에 놓여 있는 통과 뇌에 대한 지

9) H. 퍼트남, 『이성, 진리, 역사』, 39.

칭행위에서 항상 실패한다. 그가 ‘통’, ‘뇌’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적절히 지칭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간혀 있는 인식 세계 내의 대상들뿐이지 실제로서의 통과 뇌가 될 수 없다. 만약 그가 ‘통’과 ‘뇌’라는 단어를 사용해 실제로서의 통과 뇌를 지칭하고자 한다면, 그 단어와 실제로서의 통과 뇌 사이에 적절한 인과적 관계가 설정될 수 없기에, 지칭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A는 실제세계에 대한 그 어떤 지칭도, 그 어떤 기술description도 할 수 없게 된다. 즉 A는 실제적 외부세계와 인식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세계 회의론자들의 전형적 주장이다. 외부세계에 대해, 그것의 존재라든지,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그러한 주장. 퍼트남의 논변은, 원래 취지와는 달리 외부세계 회의론과 친근하게 연결되어 있다. 달리 말해 퍼트남의 논변은 외부세계 회의론을 돕고 있다. 외부세계 회의론자들도, 또 퍼트남도 다음과 같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신의 인식적 세계에 간혀 있는 A는 자신의 인식적 세계 밖으로 나아갈 수 없다.” 외부세계 회의론자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표상적 세계에 간혀 있어서, 실제적 외부세계에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퍼트남은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A라는 통 속의 뇌는 “나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발언을 할 때마다, 지칭에 실패한다. A는 자신의 세계에 인식적으로 간혀 있는 것이다. 그가 실제세계에 접근하고자 할 때마다, 그는 지칭에 실패함으로써, 이러한 접근에도 실패하는 것이다.” 이 두 입장 모두 자신의 세계에 인식적으로 간혀 있는 주체가 그 세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 둘 모두, 표상적 세계에 갇힌 존재는 실제적 외부세계에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핵심적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결론을 정식화 해보자. “A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A가 발언한다면, 이 발언은 무조건 거짓이다. 김진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제 ii)[만약 우리가 통 속의 뇌라면, “뇌”는 뇌를 지칭하지 못하며 “통”은 통을 지칭하지 못한다]를 살펴보도록 하자. (CC)의 논의와 연관하여 ii)를 풀어 쓴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CC)에 따라 지칭은 적절한 맥락을 선제하는데, BIV[통 속의 뇌 가설] 명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칭이 불가능하다.”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BIV 명제가 성립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 BIV가 성립한다면 우리는 통 속의 뇌이다. 해당 상황에서 세계는 통 속의 뇌가 느끼는 세계(표상세계)와 통과 뇌가 위치해 있는 세계(실제적 외부세계)로 완전히 분리된다. 그런데 BIV 명제, “우리는 통 속의 뇌다”라는 명제에 포함된 이름 ‘통’과 ‘뇌’에 해당하는 대상은 실제적 외부세계에 위치한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 외부세계를 경험할 어떤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CC)에 따라, 해당 상황에서 ‘통’과 ‘뇌’의 지칭은 실패한다.¹⁰⁾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칭에 실패하지 않으면서도 이 발언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주체가 퍼트남의 논변에는 포함되어 있다. 바로 사악한 과학자이다. 이 사악한 과학자는 우리의 외부세계 회의론 모델에서의 신과 같다. 신은 실제적 외부세계와 표상적 세계 밖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이 둘이 서로 대응하는지, 왜곡되어 대응하는지, 아니면 실제적 외부세계란 아예 없는지, 신은 알 수 있다. 이제 외부세계 회의론의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신과 달리 표상적 세계 내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에, 표상적 세계와 실제적 외부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그 어떤 입장도 취할 수 없다. 즉, 신이 배제된다면, 그래서 우리만 존재한다면, 외부세계 회의론은 정당화된다. 외부세계가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신적 관점에 근거해 실제적 외부세계와 표상적 세계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해명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 우리만 있다면, 우리들만으로는 이러한 관점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신이 배제된다면, 실제적 외부세계의 존재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즉 신이 배제된

10) 김진희(2016), 308-9.

경우를 “통 속의 뇌 가설”에 적용해보자. 그렇다면 이 가설에서 사악한 과학자는 제거된다. 사악한 과학자가 포함된 가설에서는 “A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발언을 의미 있게, 적절히 수행할 주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가 제거되면, 오직 A만 남게 되므로, A만이 이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A가 이 발언을 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거짓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정신에 펼쳐지는 세계 내에서 그는 통 속의 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악한 과학자가 배제되면, 그 경우 김진희의 퍼트남에 대한 해석은 옳은 것이다. “A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발언은 자기논박적인 발언이므로, 통 속의 뇌 가설 자체가 깨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통 속의 뇌가 존재하는 상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만, 사악한 과학자가 배제될 경우, 이러한 상황은 자기논박적인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

김진희는 “통 속의 뇌 가설”이 스스로 논박되었으므로, 이 가설이 함축하고 있는 입장, 즉 외부세계 회의론도 논박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통 속의 뇌 가설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외부세계 회의론을 돕고 있다. 사악한 과학자가 배제된다고 가정했을 때, “통 속의 뇌 가설”이 거짓 가설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표상적 세계에 간혀 있는 A는 실제적 외부세계에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A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발언은 자기논박적이지 않을 것이다. 인지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면, 그는 적절한 지칭에 성공할 것이고, 그렇다면 “A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발언은 참이 된다. 그러나 퍼트남에 따르면 위 발언은 거짓이고, 거짓인 이유는 적절한 인과적 지칭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실패한 궁극적 이유는 A가 실제적 외부세계에 놓인 통과 뇌에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¹⁾ 표상적 세계에 간혀 있는 A는 실제적 외부

11) A는 실제적 외부세계에 놓인 통과 뇌에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 A가 “나는 통속의 뇌이다”라고 발언할 때, A는 적절한 인과적 지칭에 실패한다 → “나

세계에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인지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그는 지칭에 실패함으로써, 이러한 인지적 접근도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퍼트남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외부세계 회의론자들의 전형적인 주장이다. 신이 아닌 이상, 우리는 실제적 외부세계에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정신 안에 펼쳐지는 표상적 세계와 실제적 외부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그러한 주장. 외부세계의 존재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확신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주장.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김진희의 주장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퍼트남은 BIV[통 속의 뇌 가설]를 통해 정식화된, 외부세계 회의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미론적 접근법을 채택한다. 그는 BIV가 “자기논박적 가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BIV식의 가설을 받아들이는 외부세계 회의론자들을 논박하고자 한다.¹²⁾

김진희에 따르면 “통 속의 뇌 가설”은 외부세계 회의론을 정식화하고 있다. 따라서 통 속의 뇌 가설이 “자기논박적인 가정”이라면, 외부세계 회의론도 자기논박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제 “통 속의 뇌 가설”이 정말로 자기논박적인지가 관건이다. “통 속의 뇌 가설” 전체가 자기논박적인가? 그렇지 않다. 통 속의 뇌 가설은 충분히 상상가능하다. 퍼트남조차도 “사실 나는 우리가 정말로 통 속에 있는 두뇌에 불과하다는 가정이 물리적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해 온 모든 것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더라도,”¹³⁾ 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가설이 자기논박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말이다. 필자는 여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는 통속의 뇌이다”라는 발언은 거짓이다.

12) 김진희(2016), 306.

13) H. 퍼트남, 『이성, 진리, 역사』, 28.

가설 전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정되는가? 무엇이 자기논박적인가? A가 “나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발화할 때마다, 그는 필연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는 퍼트남의 주장에서, 실제로 부정되는 것은 무엇인가? “통 속의 뇌 가설” 전체가 부정되는가? 그렇지 않다. 오직 부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식적 주장일 뿐이다. “A의 발언, 즉 “나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A의 발언은 참이다.” A는 적절한 지칭에 실패함으로써, 그의 발언은 항상 거짓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통 속의 뇌 가설”이 부정되는지, 아니면, A의 발언이 참이라는 상식적 견해만 부정되는지. “통 속의 뇌 가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오직 문제가 있는 것은, 이 가설 속에 등장하는 A가 참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상식적 견해뿐이다. 따라서 “통 속의 뇌 가설”이 외부세계 회의론을 함축한다 하더라도, 이 가설 전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세계 회의론 역시 부정되지 않는다. 오직 부정되는 것은, 이 가설 속에서 등장하는 A가 참인 발언을 한다는 사실 뿐이다.

이제, 통 속의 뇌 가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오직 그 가설 속에 설정된 주장, 즉 “A가 참인 발언을 한다”라는 상식적 주장만큼은 부정된다고 생각해 보자. 통상적으로 우리는 A가 참인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퍼트남은 이러한 상식적 견해에 도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A가 이러한 발언을 할 때마다, 그는 필연적으로 거짓 발언을 하는 것이다. 이제, “A가 참인 발언을 한다”라는 상식적 주장이 부정된다고 해 보자. 퍼트남은 이러한 부정이 “통 속의 뇌 가설” 전체의 부정을 낳고, 그 결과 외부세계 회의론에 대한 부정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가 참인 발언을 한다”라는 상식적 주장에 대한 부정이, 왜 이러한 부정을 품고 있는 “통 속의 뇌 가설”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본 것처럼 “A가 참인 발언을 한다”라는 상식적 견해에 대한 부정은, 오히려 외부세계 회의론과 매우 친화적으로 연결되게 된다. 이 둘 모두, 표상적 세계에 갇힌 존재는 실제적 외부세계에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핵

심적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퍼트남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퍼트남의 논변에서 “통 속의 뇌 가설” 전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가설 전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가설이 함축한다고 보여지는 외부세계 회의론도 부정되지 않는다. 오직 부정되는 것은 “A가 참인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상식적 견해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 견해가 부정된다면, 퍼트남의 생각과는 달리 외부세계 회의론은 오히려 정당화된다. 통 속의 뇌가 자신의 세계에 간혀 있기 때문에, 그가 “나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발언할 때마다, 즉 자신의 인식세계 밖으로 나가려는 언어 행위를 할 때마다, 그 발언 속의 단어 ‘통’, ‘뇌’ 등등의 단어는 지칭에 실패하게 되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인식세계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에 있어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세계에 간혀 있는 통 속의 뇌는, 자신의 세계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에 있어 항상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세계 회의론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A가 “나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발화할 때, 자기논박적인 것은, “통 속의 뇌 가설”이 아니라, 오직 다음과 같은 상식적 견해, 즉 “A가 참인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상식적 견해뿐이다. 이로부터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첫째, “통 속의 뇌 가설”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부세계 회의론 역시 부정되지 않는다. 둘째, A가 “나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발화할 때, 그는 필연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A는 자신의 인식세계 내에 간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다.¹⁴⁾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바로 외부세계 회의론자들이 전형적으로 방어하고자 하는 사실이다.

14) A가 “나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발화할 때, 그는 항상 적절한 인과적 지칭에 있어 실패한다. 따라서 A는 필연적으로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다. A는 자신의 표상적 세계를 떠나려는 시도를 함에 있어, 항상 실패한다. 즉 그는 자신의 표상적 세계에 간혀 있다.

2-2. 비트겐슈타인적 해결책

김진희는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축-명제’ 개념과 그의 후기 언어철학적 구조를 통해 외부세계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논증은 다음과 같다.

- i) 언어는 축-명제를 의미 조건으로서 선제한다.
- ii) 우리의 발화가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선제조건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i]에 따라]
- iii) 외부세계 회의론의 주장은 모든 것을 회의한다.
- iv) 모든 것을 회의하는 주장은 축-명제에 대해서도 회의할 수밖에 없다.
- v) 따라서 외부세계 회의론의 주장은 무의미하다. [i)-iv)에 따라]¹⁵⁾

이 논증에서 ‘축-명제’라는 단어만 빼고는 이해 못할 단어는 없다. 따라서 이 단어에 대한 설명만 하면 이 논증은 완전히 이해될 것이다. 김진희에 따르면, 축-명제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유의미한 언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들이고 있어야만 하는 명제들을 의미한다.” 무언가를 의심하는 명제를 발화할 때조차도 이 축-명제는 확실하게 선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축-명제란 우리가 의미 있는 언어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의미 조건, 언어의 토대 등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외부세계 회의론자로서 필자는 이 개념을 받아들인다. 즉 의미 있는 언어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언어적 토대로서의 축-명제가 있으며, 또한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김진희의 논증 중 “i) 언어

15) 김진희(2016), 315.

는 축-명제를 의미 조건으로서 선제한다.”와 “ii) 우리의 발화가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선제조건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둘 모두를 참이라 간주한다. 문제는 “따라서 외부세계 회의론의 주장은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된 다른 두 개의 전제, 즉 “iii) 외부세계 회의론의 주장은 모든 것을 회의한다.”와 “iv) 모든 것을 회의하는 주장은 축-명제에 대해서도 회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이다. 정말 외부세계 회의론의 주장은 축-명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회의하는가? 필자가 볼 때 이 두 전제는 거짓이다. 외부세계 회의론자라고 해서 반드시 의미 있는 언어활동의 전제가 되는 축-명제를 회의할 필요는 없다. 외부세계 회의론자들이 회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명칭이 충분히 암시하듯이, 오직 외부세계뿐이다. 외부세계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람에게, “너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비난한다면 그 역시 잘못된 일인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거짓 전제에 근거해 도출된 결론, 즉 “따라서 외부세계 회의론의 주장은 무의미하다.”라는 결론도 거짓이다.

김진희는 왜 거짓 전제를 사용해 거짓 결론을 도출하는 것일까?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

외부세계에 대한 앎이 불가능해지게 되면 우리의 표상은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주관주의로, 지식 회의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외부세계 회의론은 지식 회의론의 충분조건이다. 왜냐하면 외부세계 회의론은 결국 “외부세계에 대해 우리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이며, 외부세계 회의론이 선제하는 표상주의 도식에 따르면 이 주장은 곧 “우리는 어떤 참된 것(외부세계)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세계 회의론은 모든 지식의 불가능성을, 모든 확실성의 불가능성을 함축한다. 즉 외부세계 회의론자의 주장은 모든 명제의 확실성을 부인하는 주장이다.¹⁶⁾

16) 김진희(2016), 318.

이 주장에서의 핵심적 문제는 “외부세계 회의론이 지식회의론의 충분 조건”이라는 점이다. “외부세계 회의론 → 지식 회의론”이라는 주장은 인과적으로 과도하게 미끄러진 주장이다. 외부세계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지식을 의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외부세계 회의론자에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명제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게 참이다. “외부세계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인식적 한계로 인해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하나만을 옳다고 할 수 없다.” 외부세계 회의론자들이 이 명제를 확신할 수 없다면, 그는 자기논박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즉 “나는 실제적 외부세계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지만, 나의 확신조차도 나는 의심한다.”라는 자기논박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 김진희의 주장과는 달리, “외부세계 회의론자의 주장은 모든 명제의 확실성을 부인하는 주장”이 아니다. “축-명제”라는 비트겐슈타인의 개념 장치를 그 세부적인 내용의 모든 면에서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미 있는 언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활동에 전제되어 있는 의미 조건, 언어의 토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세 번째 전제 즉 “iii) 외부세계 회의론의 주장은 모든 것을 회의한다.”라는 전제, 그리고 네 번째 전제 즉 “iv) 모든 것을 회의하는 주장은 축-명제에 대해서도 회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는 거짓이라고 봐야한다. 외부세계 회의론자들은 외부세계만, 오직 외부세계만 의심한다. 물론 다른 것도 의심할 수 있겠지만, 외부세계 회의론자에게 외부세계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 언어의 토대가 되는 의미 조건 등도 의심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람에게 “너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세 번째 전제와 네 번째 전제가 모두 거짓이니, 그러한 거짓 전제들로부터 도출된 결론, 즉 “따라서 외부세계 회의론의 주장은 무의미하다.”라는 결론도 거짓이다. 퍼트남의 논변도, 비트겐슈타인의 축-명제 개념을 통해 정식화된 김진희의 논변도,

외부세계 회의론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두 실패하고 있다. 김진희가 비트겐슈타인 식의 논변이 외부세계 회의론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만약 이러한 논변이 실패라면 외부세계 회의론은 더 강해지게 될 것이다. 외부세계 회의론은 역사가 길다. 외부세계 회의론은 그 긴 역사만큼이나 지금도 강하게 살아남아 있다.

결론

상식에 어긋나는 외부세계 회의론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을까? 외부세계 회의론 모델이 말해주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식론적 관점에 갇혀있는,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한계를 갖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다. 물론 실제적 외부세계와 표상적 세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인식적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신이 그러하다. 그러나 신을 우리의 인식론 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외부세계 회의론을 부정할 방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있다. 김진희의 주장처럼, 퍼트남과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실패다. 퍼트남이 “통 속의 뇌 가설”을 부정함으로써 외부세계 회의론을 논박했다는 해석은, 필자가 볼 때 실패다. “통 속의 뇌 가설”이 부정되면, 외부세계 회의론이 논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다. 통 속의 뇌는 “나는 통 속의 뇌이다”라고 의미 있게 발화할 수 없다. 이 발언은 지칭에 실패함으로써, 자기논박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외부세계 회의론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세계 회의론이 옳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통 속의 뇌이다”라는 발언이 자기논박적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 즉 통 속의 뇌가 외부세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는 지칭에 실패함으로써, 그러한 나아감에 있어서도 실패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통 속의 뇌는 자신의 표상적 세계에 갇혀서, 실제적 외부세계에 인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세계 회의론의 전형적인 주장이다.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김진희의 해석도 외부세계 회의론을 논박함에 있어 실패로 보인다. 김진희는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을 따라, 우리가 절대 회의할 수 없는 기본적 명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외부세계 회의론은 모든 지식의 불가능성을, 모든 확실성의 불가능성을 함축한다.”고 하면서 외부세계 회의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부세계 회의론은 모든 지식의 불가능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외부세계 회의론은 오직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만을 부정한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외부세계 회의론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김진희는 퍼트남과 비트겐슈타인의 논변이 외부세계 회의론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라 생각한다. 그런 만큼, 이 두 논변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외부세계 회의론은 매우 강하며, 아직까지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참고문헌

- 김진희(2016), 「외부세계 회의론과 의미론적 극복 - 인식론적 충동을 넘어 창조적 해결책으로」, 『철학논집』, 제45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97-322.
- 박제철(2015), 「외부세계 존재에 대한 무어 논증 비판」, 『철학탐구』, 제40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11-233.
- Putnam, H.,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1981; 『이성, 진리, 역사』, 김효명 옮김, 민음사, 2002.

A Refutation of Criticism of Skepticism About External World

Bak, Jechul (Univ. of Seou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fute the Kim Jin-Hui's arguments which criticizes skepticism about the external world. Kim Jin-Hui criticizes skepticism about the external world using the Wittgenstein's arguments in which the key word is 'Hinge proposition'. However, this argument fails because it tries to draw false conclusions using a false premise. In this paper, I will demonstrate this fact.

Key words: Skepticism, Realism, Putnam, Wittgenstein.

박제철 E-mail: jechull@naver.com

투 고 일	2017년 01월 14일
심 사 일	2017년 01월 26일
게재확정	2017년 02월 15일